

<避亂 서울大齒大의 第6回 (1952.3.31) 卒業寫眞이다. 意志의 齒科人 金相讚先生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卒業生을 輩出할수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意志의 齒科人 金相讚 先生님

- ◆...6·25戰亂으로 因하여 갈곳을 잃은 서울大 齒大 및 同附屬病院을 따듯히 맞아주었고...
- ◆...또 命脈을 이어 주었고 그래서 오늘날 雄飛의 터전을 닦을수 있도록 歷史의 章을 이...
- ◆...록해 놓은 意志의 齒科人 金相讚先生님, 荊刺의 避亂時節에 선뜻 모든 것을 바친 金...
- ◆...相讚先生님의 崇高한 精神은 齒科醫師教育機關의 하나밖에 없었던 當時를 回顧할때...
- ◆...그 恩德은 너무도 深大하다. 또한 金相讚先生님이 釜山市 齒科醫師會長을 8年間이나...
- ◆...歷任하면서 數 많은 業績을 쌓았으며 現在도 地域社會 發展에 눈부신 活躍을 하고 계...
- ◆...시다. 이제 27年前을 더듬어 釜山市 光復洞 2街 18番地 所在 前 서울大齒大附屬病院...
- ◆...과 더불어 金相讚先生님을 찾은 것은 그 感懷 表現할길이 없으며 27년이 지난 오늘...
- ◆...에야 誌上으로나마 그 뜻을 기리게 된것을 甚히 多幸이라고 생각한다.

27年前만해도 齒科大學이란 單 한군데 서울大學校 齒科大學뿐이었다.
 그 大學이 갈곳이 없어졌다. 풀 밑듯 닦쳐오는 雨 避亂民도 露宿하는 狀況에서 齒科大學이 갈곳은 아무곳도 없었다. 勿論 共產使輩의 6·25蠻行으로 因한 切迫한 所産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한 先輩齒科醫師의 壯舉로 서울大學校 齒科大學은 발붙일 곳이 생겼다.
 實로 눈물겨운 齒科人의 意志의 發露요 愛國心의 發露이기도 하다.
 自宅은 臨床講義室로 病院은 附屬病院으로 提供되었다.
 故 朴明鎭學長의 請이 있기가 무섭게 그날부터 彷徨은 끝났다.
 金齒科醫院 看板 옆에는 서울大齒大 附屬病院이란 看板이 붙었다.
 午前에는 金齒科醫院, 午後에는 附屬病院이었다.
 建物은 勿論 病院設備의 一切가 提供되었다. 貴重한 機器가 더러는 없어지기도 했으며 더러는 損壞되기도



東盛齒科技工所

代表 趙煥東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6
 (73) 0474 (72) 9712

370

했다. 그러나 그것은 問題가 아니었다. 여기서 大學의 使命이 完遂되고 命脈이 이어져 주면 그것으로 萬事는 滿足이다. 臨床講義室은 밤에는 要員의 宿所로도 使用되어 그야말로 多目的으로 利用되었다. 附屬病院에서는 患者도 診療하면서 病院으로서의 收入도 올렸다. 그러나 嚴然히 金齒科醫院의 收入은 아니다.

어느덧 金齒科醫院 正門에는 또 하나의 看板이 달아졌다. 大韓齒科醫師協會 連絡事務所, 그리고 서울大齒大同窓會 連絡事務所 等으로 이제는 看板을 더 붙일 곳이 없었다.

大學은 假校舍를 얻어 1年餘後에 移轉했지만 病院은 꽤 오랫동안 持續되었다. 거의가 軍服을 입은 學生들이 卒業高眞도 적을 餘裕가 생겼다.

지금까지 內容은 27年前에 있었던 거짓말 같은 事實이다. 그 由緒 깊은 金齒科醫院을 長男인 金鶴大博士(1965年 서울大齒大卒)가 承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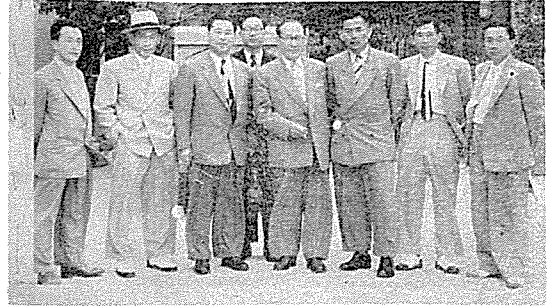
釜山市齒科醫師會會長 8年 在任期間中 代議員定期總會 兼 綜合學術大會를 釜山에 誘致했다. 처음으로 地方開催의 契期를 만든 것이다.

壯嚴하고 盛大한 開會式이 舉行되었다. 釜山市立交響樂團의 우렁찬 奏樂속에 幕이 오른 것이다. 이것은 意志의 齒科人 金相讚先生의 熱과 誠의 結實이었다. 齒科醫師의 社會的 地位를 格上시키는 瞬間이기도 하다. 요셋말로 醫權伸張이라고 하던가. 釜山市教育委員會는 齒科校醫의 手當을 豫算으로 正式 反映, 全國에서 처음으로 國庫로서 校醫手當이 支給되었다. 金相讚先生이 東奔西走한 값진 所産이다. 正當性을 主張했으며 鬭爭을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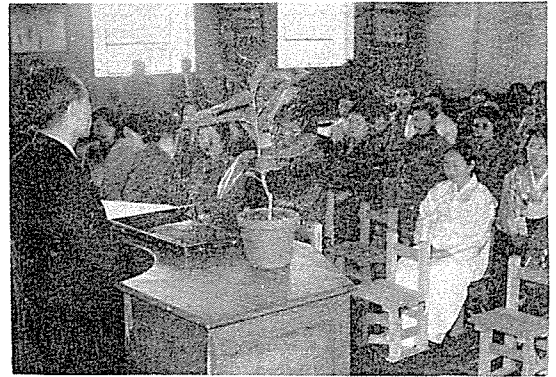
齒科醫師의 權益向上은 앞에서 되는데 아니다. 口腔啓蒙行事를 갖어야 했다. 全國에서 생긴 처음 들어보는 健齒兒童表彰制度가 實施됐다. 지금도 釜山市 支部에서는 健齒老人 아닌 健齒兒童에 對한 施賞制度가 續行되고 있다. 東光國民學校의 育成會會長을 10餘年 歷任하는 동안에는 姉母를 모아놓고 口腔啓蒙의 講演을 해아릴수 없이 해나갔다.



<金相讚先生의 自宅 應接室이다. 낮에는 齒大臨床講義室, 齒協 및 同窓會 連絡事務所, 그리고 밤에는 宿所로 利用되었던 歷史의인 房이다. 寫眞中에는 어떤 行使用를 앞두고 豫行 演習中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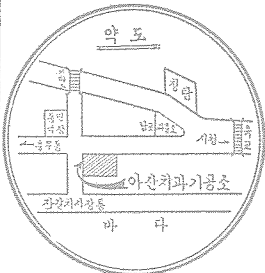


<會長 在任時 會員의 資質向上을 爲한 學術講演會가 자주 열렸다. 演士로 李春根教授가 招請되었다>



<東光國校師親會會長 當時 姉母會가 있을때 마다 口腔啓蒙講演을 했다. 國民에 對한 口腔啓蒙은 그때나 지금이나 齒科界의 當面課題가 아닌가>

최근 齒科技工所의 施設과 規模를 대폭 擴張하여 아래 장소로 移轉하였기 인사드리며 有能한 技士를 補強, 보다 훌륭한 材料를 嚴選하여 堅牢한 技工物製作을 위해 精誠을 다할 것을 約束드립니다.



亞山齒科技工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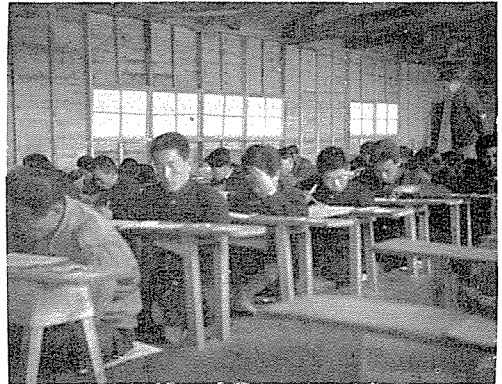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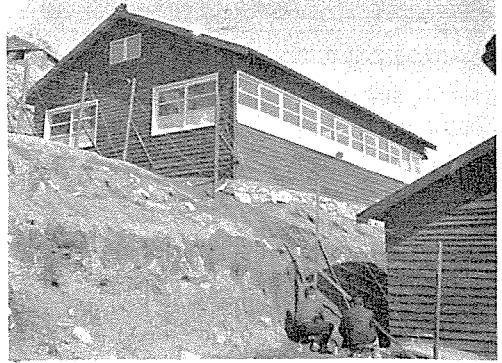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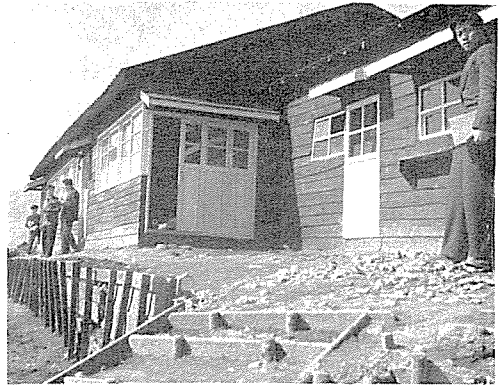
代表 白 珠 顯 전화 (23) 2147 · 4964

釜山市 中区 忠武洞 1街 28

齒科醫師의 社會參與度가 높을수록 그 權益의 伸張은 正比例한다. 慶南 軟式 庭球聯盟會長에 被選되기도 했다. 金相讚先生님은 지금 光復洞 繁榮會會長으로서 거리의 秩床를 確立시키고 夜市場을 開設 所得 増大의 功績을 이루어 놓았다.

6월은 民族의 恨이 서린 6.25의 달

意志의 齒科人 金相讚先生님의 健康과 더불어 光榮이 永遠하시기를 빈다.



<由緒깊은 金齒科醫院 建物(지금은 増築을 해서 前에 모습은 아니다), 6.25避亂 當時만해도 齒科에 關한 모든 看板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다>

<1952年 불에 大廳洞山 中턱세 세워진 판자 假校舍, 멘바닥에 앉아 試驗中이다>

= 各種 齒科材料 一切 =

興安齒材商社

代表 尹 正 權

서울特別市 中区 南大門路 5街 20-1

(청송빌딩 308호 · 지원다방 3층)

22-6213